

- 문 1. 다음 <표>는 2020년 4분기(10 ~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에 관한 자료이다. 제시된 <표> 이외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1> 월별 아파트 입주 물량  
(단위: 세대)

구분 \ 월	10월	11월	12월	합
전국	21,987	25,995	32,653	80,635
수도권	13,951	15,083	19,500	48,534
비수도권	8,036	10,912	13,153	32,101

<표 2> 규모 및 공급주체별 아파트 입주 물량  
(단위: 세대)

구분	규모			공급주체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	85㎡ 초과	공공	민간
전국	34,153	42,528	3,954	23,438	57,197
수도권	21,446	24,727	2,361	15,443	33,091
비수도권	12,707	17,801	1,593	7,995	24,106

—<보고서>—

2020년 4분기(10 ~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80,635 세대로 집계되었다. 수도권은 48,534세대로 전년동기 및 2015 ~ 2019년 4분기 평균 대비 각각 37.5%, 1.7%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32,101세대로 전년동기 및 2015 ~ 2019년 4분기 평균 대비 각각 47.6%, 46.8% 감소하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12,097세대로 전년동기 대비 7.9% 증가하였다. 그 외 인천·경기 36,437세대, 대전·세종·충남 8,015세대, 충북 3,835세대, 강원 646세대, 전북 0세대, 광주·전남·제주 5,333세대, 대구·경북 5,586세대, 부산·울산 5,345세대, 경남 3,341세대였다. 주택 규모별로는 60㎡ 이하 34,153세대, 60㎡ 초과 85㎡ 이하 42,528세대, 85㎡ 초과 3,954세대로, 85㎡ 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5.1%를 차지하여 중소형 주택의 입주 물량이 많았다. 공급주체별로는 민간 57,197세대, 공공 23,438세대로, 민간 입주 물량이 공공 입주 물량의 2배 이상이었다.

—<보 기>—

- ㄱ. 2015 ~ 2019년 4분기 수도권 및 비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ㄴ. 2015 ~ 2019년 공급주체별 연평균 아파트 입주 물량  
 ㄷ. 2019 ~ 2020년 4분기 시도별 아파트 입주 물량  
 ㄹ. 2019년 4분기 규모 및 공급주체별 아파트 입주 물량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 문 2. 다음 <표>는 A ~ E 지점을 연이어 주행한 ‘갑’ ~ ‘병’자동차의 구간별 연료 소모량 및 평균 속력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갑’ ~ ‘병’자동차의 구간별 연료 소모량 및 평균 속력  
(단위: km, L, km/h)

구간	자동차 (연료) 구분 거리	갑 (LPG)		을 (휘발유)		병 (경유)	
		연료 소모량	평균 속력	연료 소모량	평균 속력	연료 소모량	평균 속력
A→B	100	7.0	100	5.0	100	3.5	110
B→C	50	4.0	90	3.0	100	2.0	90
C→D	70	5.0	100	4.0	90	3.0	100
D→E	20	2.0	100	1.5	110	1.5	100
전체	240	18.0	( )	13.5	( )	10.0	( )

※ 1) L당 연료비는 LPG 1,000원, 휘발유 1,700원, 경유 1,500원임.

$$2) \text{주행 연비(km/L)} = \frac{\text{주행 거리}}{\text{연료 소모량}}$$

—<보 기>—

- ㄱ. 전체 구간 주행 시간은 ‘병’이 가장 길다.  
 ㄴ. 전체 구간 주행 연료비는 ‘을’이 가장 많고, ‘병’이 가장 적다.  
 ㄷ. 전체 구간 주행 연비는 ‘병’이 가장 높고, ‘갑’이 가장 낮다.  
 ㄹ. ‘갑’의 A→B 구간 주행 연비는 ‘을’의 B→C 구간 주행 연비보다 높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ㄴ, ㄷ, ㄹ

- 문 3. 다음 <표>는 A 질환 환자의 성별 흡연 및 음주 여부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A 질환 환자의 성별 흡연 및 음주 여부  
(단위: 명, %)

음주 여부	성별 흡연 여부 구분	남성		여성	
		흡연	비흡연	흡연	비흡연
음주	인원	600	( )	( )	( )
	비율	30	35	( )	20
비음주	인원	( )	( )	300	450
	비율	10	( )	( )	30

※ 비율(%)은 흡연 및 음주 여부에 따른 남(여)성 환자 수를 전체 남(여)성 환자 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임. 예를 들어, 남성 환자 중 흡연과 음주를 모두 하는 비율은 30%임.

—<보 기>—

- ㄱ. 흡연 비율은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보다 높다.  
 ㄴ. 비음주이면서 비흡연인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ㄷ. 각 성별에서 음주 환자가 비음주 환자보다 많다.  
 ㄹ. 전체 환자 중 음주 환자 비중은 전체 환자 중 흡연 환자 비중보다 크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ㄴ, ㄷ, ㄹ

- 문 4. 다음 <표>는 ‘갑’국 국세청의 행정소송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제시된 <표> 이외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lt;표 1&gt; 2017 ~ 2020년 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처리대상건수		처리완료건수				처리미완료건수		
	전년 이월	당년 제기	취하	각하	국가 승소	국가 패소	행정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2017	2,093	1,679	409	74	862	179	1,279	647	322
2018	2,248	1,881	485	53	799	208	1,536	713	335
2019	2,584	1,957	493	78	749	204	2,043	692	282
2020	3,017	2,026	788	225	786	237	1,939	793	275

$$\text{※ 미완료율(\%)} = \frac{\text{처리미완료건수}}{\text{처리대상건수}} \times 100$$

&lt;표 2&gt; 2020년 세목별 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

구분 세목	처리대상건수		처리완료건수				처리미완료건수		
	전년 이월	당년 제기	취하	각하	국가 승소	국가 패소	행정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종합소득세	305	249	85	7	103	33	227	74	25
법인세	443	347	54	6	108	44	396	123	59
부가가치세	645	405	189	13	162	42	400	183	61
양도소득세	909	447	326	170	240	39	378	167	36
상속세	84	52	14	1	28	9	50	20	14
증여세	429	282	70	12	96	49	272	157	55
기타	202	244	50	16	49	21	216	69	25

&lt;표 3&gt; 2020년 소송가액별 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

구분 소송가액	처리대상건수		처리완료건수				처리미완료건수		
	전년 이월	당년 제기	취하	각하	국가 승소	국가 패소	행정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3억 원 미만	1,758	1,220	599	204	540	102	1,028	414	91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542	375	129	15	133	56	374	156	54
10억 원 이상	717	431	60	6	113	79	537	223	130

## &lt;보고서&gt;

2017 ~ 2020년 ‘갑’국 국세청의 연도별 행정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이월 처리대상건수와 당년 제기 처리대상건수는 매년 증가하였다. 한편 2017 ~ 2019년 미완료율은 매년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미완료율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2017 ~ 2020년 처리대상건수 대비 국가승소건수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였는데, 특히 2017년에는 전년 대비 20%p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17 ~ 2020년 국가승소건수 중 법인세 관련 행정소송건수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매년 감소하였다.

2020년에 전년 이월 처리대상건수가 가장 많은 세목은 양도소득세였으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처리완료되지 못하고 2021년으로 이월된 행정소송건수가 가장 많은 세목은 부가가치세였다.

2020년의 경우 소송가액 3억 원 미만인 국가승소건수가 3억 원 이상인 국가승소건수보다 많았다. 한편 2017 ~ 2020년 행정법원 소송 처리미완료건수 중 소송가액 10억 원 이상인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이 가장 높았으며 2020년이 가장 낮았다.

## &lt;보 기&gt;

- ㄱ. 2016년 행정소송 처리대상건수 및 국가승소건수  
 ㄴ. 2021년 소송가액별 행정소송 처리대상건수  
 ㄷ. 2017 ~ 2019년 국가승소건수 중 법인세 관련 행정소송건수  
 ㄹ. 2017 ~ 2019년 소송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행정법원 소송 처리미완료건수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문 5. 다음 <표>는 ‘갑’도매시장에서 출하되는 4개 농산물의 수송 방법별 운송량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lt;표&gt; 4개 농산물의 수송 방법별 운송량

(단위: 톤)

농산물 수송 방법	쌀	밀	콩	보리	합계
도로	10,600	16,500	400	2,900	30,400
철도	5,800	7,500	600	7,100	21,000
해운	1,600	3,000	4,000	2,000	10,600

※ ‘갑’도매시장 농산물 수송 방법은 도로, 철도, 해운으로만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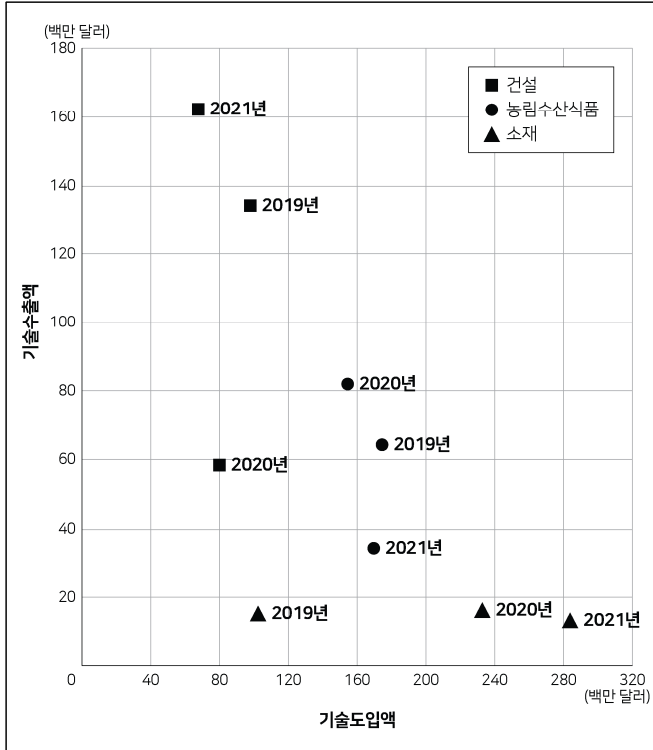
## &lt;보 기&gt;

- ㄱ. 농산물별 해운 운송량이 각각 100톤씩 증가하면 4개 농산물 해운 운송량의 평균은 2,750톤이다.  
 ㄴ. 보리의 수송 방법별 운송량이 각각 50%씩 감소하고 콩의 수송 방법별 운송량이 각각 100%씩 증가하더라도, 4개 농산물 전체 운송량에는 변동이 없다.  
 ㄷ. 도로 운송량이 많은 농산물일수록 해당 농산물의 운송량 중 도로 운송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ㄹ. 해운 운송량이 적은 농산물일수록 해당 농산물의 운송량 중 해운 운송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작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문 6. 다음 <그림>은 2019 ~ 2021년 ‘갑’국의 건설, 농림수산물, 소재 3개 산업의 기술도입액과 기술수출액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 3개 산업의 기술도입액과 기술수출액 현황



※ 1) 기술무역규모 = 기술수출액 + 기술도입액

2) 기술무역수지 = 기술수출액 - 기술도입액

3) 기술무역수지비 =  $\frac{\text{기술수출액}}{\text{기술도입액}}$

- ① 2020년 3개 산업 중 기술무역수지가 가장 작은 산업은 건설 산업이다.
- ② 2021년 3개 산업 중 기술무역규모가 가장 큰 산업은 소재 산업이다.
- ③ 2019년 3개 산업의 전체 기술도입액은 3억 2천만 달러 이상이다.
- ④ 소재 산업에서 기술무역수지는 매년 감소한다.
- ⑤ 농림수산물 산업에서 기술무역수지비가 가장 큰 해는 2020년이다.

- 문 7. 다음 <표>는 2018 ~ 2021년 ‘갑’국의 여름철 물놀이 사고 사망자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1> 연령대별 여름철 물놀이 사고 사망자 수

(단위: 명)

연령대 연도	10세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2018	2	6	4	4	4	4
2019	2	13	9	2	2	8
2020	2	9	7	2	4	13
2021	0	5	3	5	5	19

<표 2> 4대 주요 발생 장소 및 원인별 여름철 물놀이 사고 사망자 수

(단위: 명)

구분 연도	4대 주요 발생 장소				4대 주요 원인			
	하천	해수욕장	계곡	수영장	안전부주의	수영미숙	음주수영	급류
2018	16	3	2	2	6	13	3	2
2019	23	3	5	4	9	14	5	6
2020	19	3	1	12	8	14	3	8
2021	23	7	2	5	9	12	6	2

※ 여름철 물놀이 사고 사망자의 발생 장소와 원인은 각각 1가지로만 정함.

<보고서>

물놀이 사고는 여름철인 6 ~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연도별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여름철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2019년에 전년 대비 50 % 이상 증가하였고, 이후 매년 30명 이상이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 사망자 중 4대 주요 원인에 의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해는 2018년이다. 한편, ㉢여름철 물놀이 사고 사망자 중 수영미숙에 의한 사망자가 매년 30 % 이상을 차지해 이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2019년과 2020년은 급류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다른 해에 비해 많았다.

사고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여름철 물놀이 사고 사망자의 60 % 이상이 하천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하천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 사망자 수를 연령대와 장소 및 원인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50대 이상 사망자 중 수영장 외의 장소에서 사망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고, ㉤2021년 안전부주의 사망자 중 30대 이상 사망자가 1명 이상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ㄹ
- ⑤ ㅁ

문 8. 다음 <표>는 2020년 A ~ D국의 어업 생산량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을 근거로 A ~ D에 해당하는 국가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2020년 A ~ D국의 어업 생산량  
(단위: 천 톤)

어업유형 국가	전체	해면어업	천해양식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A	3,255	1,235	1,477	( )	33
B	10,483	3,245	( )	1,077	3,058
C	8,020	2,850	( )	720	1,150
D	9,756	4,200	324	( )	2,287

※ 1) 어업유형은 해면어업, 천해양식, 원양어업, 내수면어업으로만 구분됨.

2) 어업유형별 의존도 =  $\frac{\text{해당 어업유형의 어업 생산량}}{\text{전체 어업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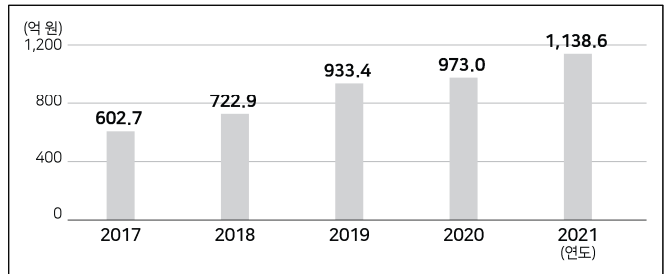
<조 건>

- 내수면어업 생산량이 원양어업 생산량보다 많은 국가는 ‘갑’과 ‘병’이다.
- 해면어업 의존도는 ‘갑’ ~ ‘정’ 중 ‘정’이 두 번째로 높다.
- ‘병’의 천해양식 생산량은 ‘을’의 원양어업 생산량의 1.1배 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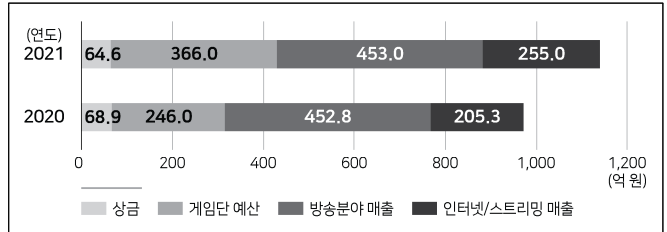
	A	B	C	D
① 을	갑	병	정	정
② 을	병	갑	정	갑
③ 병	을	정	갑	을
④ 정	갑	병	을	정
⑤ 정	병	갑	을	정

문 9. 다음 <그림>은 ‘갑’국 및 글로벌 e스포츠 산업 규모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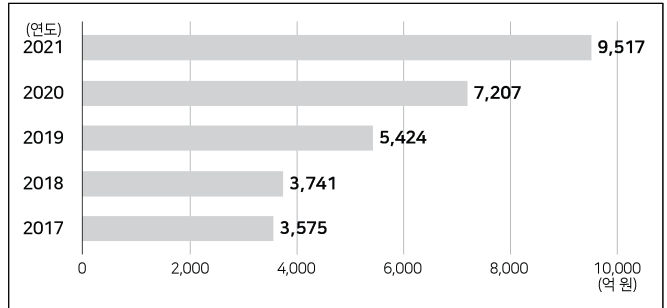
<그림 1> 2017 ~ 2021년 ‘갑’국 e스포츠 산업 규모



<그림 2> 2020년, 2021년 ‘갑’국 e스포츠 산업의 세부항목별 규모



<그림 3> 2017 ~ 2021년 글로벌 e스포츠 산업 규모



<보고서>

2021년 ‘갑’국 e스포츠 산업 규모는 1,138억 6,00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 이는 2020년 973억 원에서 15% 이상 성장한 것이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 방송분야 매출이 453억 원으로 전체의 35%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게임단 예산은 366억 원, 인터넷/스트리밍 매출은 255억 원, 상금은 64억 6,000만 원이었다. 게임단 예산은 전년 대비 45% 이상 증가한 것이고, 인터넷/스트리밍 매출 또한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방송분야 매출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상금은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글로벌 e스포츠 산업 규모와 ‘갑’국 e스포츠 산업 규모의 성장세를 살펴보면, ㉢ 글로벌 e스포츠 산업 규모는 2019년부터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하였고, ‘갑’국 e스포츠 산업 규모도 매년 성장하였다. 그러나, ㉣ ‘갑’국 e스포츠 산업 규모가 2020년에는 전년 대비 5% 미만의 성장에 그쳐 글로벌 e스포츠 산업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미만이었다. 이는 ㉤ 글로벌 e스포츠 산업 규모 대비 ‘갑’국 e스포츠 산업 규모의 비중이 2017년 이후 매년 감소한 것으로, ‘갑’국 e스포츠 산업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는 있으나 글로벌 e스포츠 산업 규모의 성장세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① ㉠ ㉡ ㉢ ㉣ ㉤

문 10. 다음 <표>는 2017 ~ 2021년 ‘갑’국의 불법체류외국인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연도	체류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	체류유형별 구성비			
			단기체류 외국인	등록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전체
2017	1,797,618	208,778	54.0	45.0	1.0	100.0
2018	1,899,519	214,168	59.8	39.7	0.5	100.0
2019	2,049,441	208,971	63.5	36.0	0.5	100.0
2020	2,180,498	251,041	66.6	33.0	0.4	100.0
2021	2,367,607	355,126	74.4	25.4	0.3	100.0

※ 체류외국인은 불법체류외국인과 합법체류외국인으로 구분됨.

<표 2> 체류자격별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단위: 명, %)

연도 체류자격	2017	2018	2019	2020	2021	구성비
사증면제	46,117	56,307	63,319	85,196	162,083	45.6
단기방문	45,746	47,373	46,041	56,331	67,157	18.9
비전문취업	52,760	49,272	45,567	46,618	47,373	13.3
관광통과	15,899	19,658	19,038	20,662	30,028	8.5
일반연수	4,816	4,425	4,687	7,209	12,613	3.6
기타	43,440	37,133	30,319	35,025	35,872	10.1
전체	208,778	214,168	208,971	251,041	355,126	100.0

※ 체류자격은 불법체류외국인의 입국 당시 체류자격을 의미함.

<표 3> 국적별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단위: 명, %)

연도 국적	2017	2018	2019	2020	2021	구성비
A	53,689	61,943	65,647	81,129	153,485	43.2
B	79,717	76,757	65,379	75,507	85,964	24.2
C	36,338	35,987	37,410	44,371	56,950	16.0
D	16,814	17,698	19,694	25,399	30,813	8.7
기타	22,220	21,783	20,841	24,635	27,914	7.9
전체	208,778	214,168	208,971	251,041	355,126	100.0

- 2020년 대비 2021년 불법체류외국인 증가인원 중에서 국적이 A인 불법체류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 이상이다.
- 체류유형이 등록외국인인 불법체류외국인의 수는 매년 감소한다.
- 불법체류외국인 수가 많은 상위 3개 체류자격을 그 수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사증면제, 단기방문, 비전문취업 순으로 매년 동일하다.
- 체류외국인 대비 불법체류외국인 비중은 매년 증가한다.
- 2021년 체류외국인은 전년 대비 10 % 이상 증가하였다.

문 11. 다음 <표>는 2015 ~ 2021년 ‘갑’국 4개 대학의 변호사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에 근거하여 A ~ D에 해당하는 대학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2015 ~ 2021년 대학별 변호사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단위: 명)

대학	연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응시자	50	52	54	66	74	89	90
A	합격자	50	51	46	51	49	55	48
	응시자	58	81	94	98	94	89	97
B	합격자	47	49	65	73	66	53	58
	응시자	89	101	109	110	115	142	145
C	합격자	79	83	94	88	75	86	80
	응시자	95	124	152	162	169	210	212
D	합격자	86	82	85	109	80	87	95

<조 건>

- ‘우리대’와 ‘나라대’는 해당 대학의 응시자 수가 가장 많은 해에 합격률이 가장 낮다.
- 2021년 ‘우리대’의 합격률은 55 % 미만이다.
- ‘푸른대’와 ‘강산대’는 해당 대학의 합격자 수가 가장 많은 해와 가장 적은 해의 합격자 수 차이가 각각 25명 이상이다.
- ‘강산대’의 2015년 대비 2021년 합격률 감소폭은 40%p 이하이다.

$$\text{※ 합격률(\%)} = \frac{\text{합격자}}{\text{응시자}} \times 100$$

- |       |          |          |          |          |
|-------|----------|----------|----------|----------|
|       | <u>A</u> | <u>B</u> | <u>C</u> | <u>D</u> |
| ① 나라대 | 강산대      | 우리대      | 푸른대      |          |
| ② 나라대 | 푸른대      | 우리대      | 강산대      |          |
| ③ 우리대 | 강산대      | 나라대      | 푸른대      |          |
| ④ 우리대 | 푸른대      | 나라대      | 강산대      |          |
| ⑤ 푸른대 | 나라대      | 강산대      | 우리대      |          |

문 12. 다음 <표>는 2019 ~ 2021년 ‘갑’국의 조세지출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19 ~ 2021년 항목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

항목	연도 구분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중소기업지원		24,176	6.09	26,557	6.34	31,050	6.55
연구개발		29,514	7.44	29,095	6.95	28,360	5.98
국제자본거래		24	0.01	5	0.00	4	0.00
투자촉진		16,496	4.16	17,558	4.19	10,002	2.11
고용지원		1,742	0.44	3,315	0.79	4,202	0.89
기업구조조정		921	0.23	1,439	0.34	1,581	0.33
지역균형발전		25,225	6.36	26,199	6.26	27,810	5.87
공익사업지원		5,006	1.26	6,063	1.45	6,152	1.30
저축지원		14,319	3.61	14,420	3.44	14,696	3.10
국민생활안정		125,727	31.69	134,631	32.16	142,585	30.07
근로·자녀장려		17,679	4.46	18,314	4.38	57,587	12.15
간접국세		94,455	23.81	97,158	23.21	104,071	21.95
외국인투자		2,121	0.53	1,973	0.47	2,064	0.44
국제도시육성		2,316	( )	2,149	0.51	2,255	( )
기업도시		75	0.02	54	0.01	56	0.01
농협구조개편		480	0.12	515	0.12	538	0.11
수협구조개편		44	0.01	1	0.00	0	0.00
기타		36,449	9.19	39,155	9.35	41,112	8.67
전체		396,769	100.00	418,601	100.00	474,125	100.00

<보 기>

- ㄱ. 기타를 제외하고, 전년 대비 조세지출금액이 증가한 항목 수는 2020년이 2021년보다 많다.
- ㄴ. 기타를 제외한 항목 중 조세지출금액 상위 3개 항목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합은 매년 60 %를 초과한다.
- ㄷ. 기타를 제외하고, 조세지출금액이 매년 증가한 항목은 10개이다.
- ㄹ. 국제도시육성 항목의 비중은 매년 감소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ㄴ, ㄷ, ㄹ

문 13. 다음 <표>는 ‘갑’국의 2017 ~ 2021년 소년 범죄와 성인 범죄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소년 범죄와 성인 범죄 현황  
(단위: 명, %)

구분 연도	소년 범죄			성인 범죄			소년 범죄자 비율
	범죄자수	범죄율	발생지수	범죄자수	범죄율	발생지수	
2017	63,145	1,172	100.0	953,064	2,245	100.0	62
2018	56,962	1,132	96.6	904,872	2,160	96.2	5.9
2019	61,162	1,246	106.3	920,760	2,112	94.1	( )
2020	58,255	1,249	( )	878,991	2,060	( )	6.2
2021	54,205	1,201	102.5	878,917	2,044	91.0	5.8

- ※ 1) 범죄는 소년 범죄와 성인 범죄로만 구분함.
- 2) 소년(성인) 범죄율은 소년(성인) 인구 10만 명당 소년(성인) 범죄자수를 의미함.
- 3) 소년(성인) 범죄 발생지수는 2017년 소년(성인) 범죄율을 100.0으로 할 때, 해당 연도 소년(성인) 범죄율의 상대적인 값임.
- 4) 소년 범죄자 비율(%) =  $\left(\frac{\text{소년 범죄자수}}{\text{소년 범죄자수} + \text{성인 범죄자수}}\right) \times 100$

<보 기>

- ㄱ. 2017년 대비 2021년 소년 인구는 증가하고 소년 범죄자수는 감소하였다.
- ㄴ. 소년 범죄율이 2017년 대비 6.0 % 이상 증가한 연도의 소년 범죄자 비율은 6.0 % 이상이다.
- ㄷ. 소년 범죄 발생지수와 성인 범죄 발생지수 모두 2021년이 2020년보다 작다.
- ㄹ. 소년 범죄 발생지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연도에는 소년 범죄자수도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 14. 다음 <표>는 A ~ D마을로 구성된 ‘갑’지역의 가구수에 관한 자료이다. <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은 것은?

〈표 1〉 마을별 1인 가구 현황 (단위: 가구, %)

연도\마을	A	B	C	D
2018	90(18.0)	130(26.0)	200(40.0)	80(16.0)
2019	220(36.7)	60(10.0)	130(21.7)	190(31.7)
2020	305(43.6)	240(34.3)	80(11.4)	75(10.7)
2021	120(15.0)	205(25.6)	160(20.0)	315(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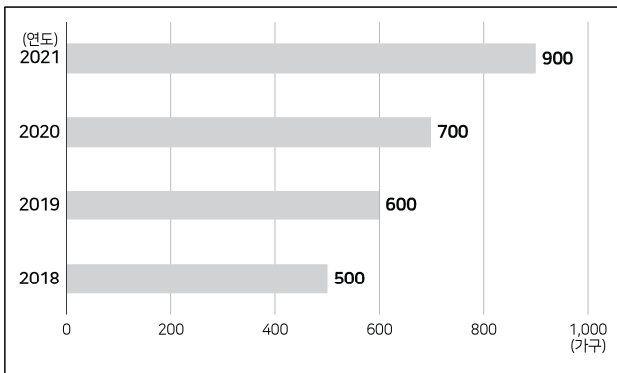
※ (        )안 수치는 연도별 ‘갑’지역 1인 가구수 중 해당 마을 1인 가구수의 비중임.

〈표 2〉 마을별 총가구수 (단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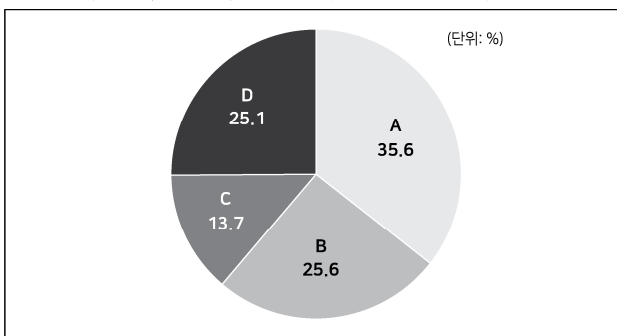
마을	A	B	C	D
총가구수	600	550	500	500

※ A ~ D 마을별 총가구수는 매년 변동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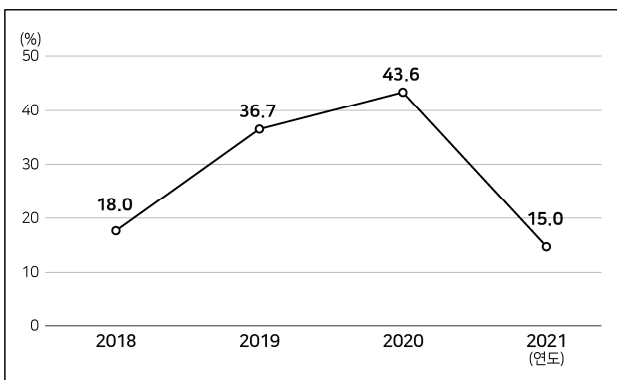
① 연도별 ‘갑’지역 1인 가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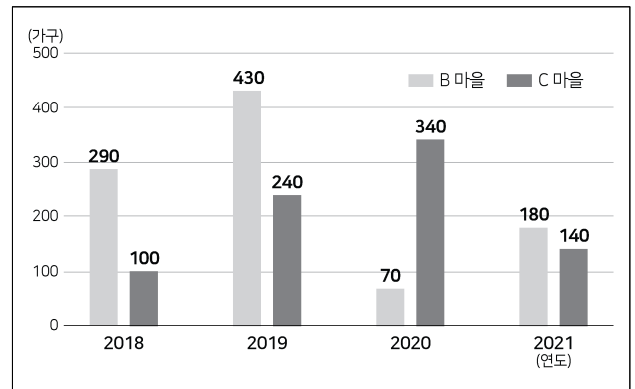
② 2021년 ‘갑’지역 2인 이상 가구의 마을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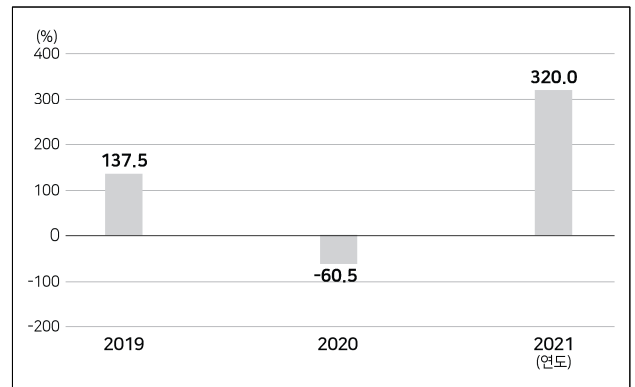
③ 연도별 A 마을의 총가구수 대비 1인 가구수 비중



④ 연도별 B, C 마을의 2인 이상 가구수와 1인 가구수 차이



⑤ 연도별 D 마을의 전년 대비 1인 가구수 증가율



문 15. 다음 <표>는 2020년과 2021년 A ~ E 국의 선행시간별 태풍예보 거리오차에 관한 자료이고, <보고서>는 ‘갑’국의 태풍예보 거리오차를 분석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A ~ E 중 ‘갑’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표〉 2020년과 2021년 A~E국의 선행시간별 태풍예보 거리오차  
(단위: km)

선행시간 국가 \ 연도		48시간		36시간		24시간		12시간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A		121	119	95	90	74	66	58	51
B		151	112	122	88	82	66	77	58
C		128	132	106	103	78	78	59	60
D		122	253	134	180	113	124	74	81
E		111	170	88	100	70	89	55	53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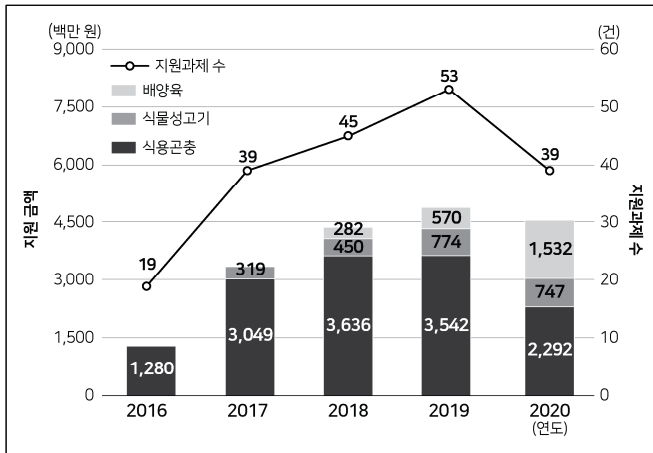
태풍예보 정확도 개선을 위해 지난 2년간의 ‘갑’국 태풍예보 거리오차를 분석하였다. 이때 선행시간 48시간부터 12시간까지 12시간 간격으로 예측한 태풍에 대해 거리오차를 계산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2020년과 2021년 모두 선행시간이 12시간씩 감소할수록 거리오차도 감소하였다. 둘째, 2021년의 거리 오차는 선행시간이 36시간, 24시간, 12시간일 때 각각 100 km 이하였다. 셋째, 선행시간별 거리오차는 모두 2020년보다 2021년이 작았다. 마지막으로 2020년과 2021년 모두 선행시간이 12시간씩 감소하더라도 거리오차 감소폭은 30 km 미만이었다.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문 16. 다음 <그림>과 <표>는 2016 ~ 2020년 ‘갑’국 대체육 분야의 정부 R&D 지원 규모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 대체육 분야별 정부 R&D 지원 규모



<표> 대체육 분야 연구유형별 정부 R&D 지원 금액  
(단위: 백만 원)

분야	연도 연구유형	2016	2017	2018	2019	2020
배양육	기초연구	—	—	—	8	972
	응용연구	—	—	67	( )	0
	개발연구	—	—	215	383	( )
	기타	—	—	—	40	0
식물성 고기	기초연구	—	—	—	—	100
	응용연구	—	78	130	221	70
	개발연구	—	241	320	553	577
	기타	—	—	—	—	—
식용 곤충	기초연구	( )	75	( )	209	385
	응용연구	250	1,304	1,306	1,339	89
	개발연구	836	1,523	1,864	1,915	( )
	기타	127	147	127	79	37
전체		1,280	3,368	4,368	4,886	4,571

※ 1) 대체육 분야는 배양육, 식물성고기, 식용곤충으로만 구분됨.

2) ‘—’는 지원이 시작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며, 식용곤충 분야는 2016년부터 지원이 시작되었음.

- ① 지원과제당 지원 금액은 2019년이 2017년보다 적다.
- ② 배양육 분야 지원 금액에서 응용연구 지원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이 2019년보다 크다.
- ③ 대체육 전체 지원 금액에서 식물성고기 분야 지원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이 2018년보다 크다.
- ④ 식용곤충 분야 기초연구 지원 금액은 2018년이 2016년의 5배 이상이다.
- ⑤ 모든 분야에서 개발연구 지원 금액은 지원이 시작된 이후 매년 증가하였다.

문 17. 다음 <표>는 2020년 기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상위 10개 업체의 2015 ~ 2020년 전기차 판매량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고서>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0년 기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상위 10개 업체의 전기차 판매량 및 시장 점유율  
(단위: 대, %)

업체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 사		43,840 (15.9)	63,479 (14.4)	81,161 (10.8)	227,066 (17.4)	304,353 (19.8)	458,385 (22.1)
G 사		2,850 (1.0)	3,718 (0.8)	39,454 (5.2)	56,294 (4.3)	87,936 (5.7)	218,626 (10.6)
V 사		5,190 (1.9)	12,748 (2.9)	18,424 (2.5)	24,093 (1.8)	69,427 (4.5)	212,959 (10.3)
R 사		60,129 (21.8)	78,048 (17.7)	85,308 (11.3)	140,441 (10.8)	143,780 (9.4)	184,278 (8.9)
H 사		1,364 (0.5)	6,460 (1.5)	26,841 (3.6)	53,138 (4.1)	98,737 (6.4)	146,153 (7.1)
B 사		9,623 (3.5)	46,909 (10.6)	42,715 (5.7)	103,263 (7.9)	147,185 (9.6)	130,970 (6.3)
S 사		412 (0.1)	1,495 (0.3)	10,490 (1.4)	34,105 (2.6)	52,547 (3.4)	68,924 (3.3)
P 사		1,543 (0.6)	5,054 (1.1)	4,640 (0.6)	8,553 (0.7)	6,855 (0.4)	67,446 (3.3)
A 사		—	—	—	15 (0.0)	40,272 (2.6)	60,135 (2.9)
W 사		—	—	—	5,245 (0.4)	38,865 (2.5)	56,261 (2.7)

※ 괄호 안의 수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해당 업체의 판매량 기준 점유율임.

<보고서>

2020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량 기준 업체별 순위는 T 사, G 사, V 사, R 사, H 사 순이었다. ㉠ H 사의 2020년 전기차 판매량은 2016년 대비 20배 이상이었으며, 시장 점유율은 7.1 %였다. ㉡ H 사의 전기차 판매량 순위는 2015년 7위에서 2016년 5위로 상승하였으며, 2019년에는 4위로 오른 후 2020년에 다시 5위를 기록하였다. T 사는 2020년 약 45만 8천 대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매한 업체였다. ㉢ T 사의 전기차 판매량이 2016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해에는 시장 점유율도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한편, G 사는 2020년 약 21만 9천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였는데, 이 중 81.4 %인 약 17만 8천 대가 중국에서 판매되었다. V 사는 2020년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였는데, ㉣ V 사의 2020년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4만 대 이상 증가하여 전기차 판매량 상위 10개 업체 중 판매량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다음 <표>는 2021년 ‘갑’기관에서 출제한 1차, 2차 면접 문제의 문항별 점수 및 반영률과 면접에 참여한 지원자 A ~ F의 면접 점수 및 결과를 나타낸 자료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문 18. ~ 문 19.]

<표 1> ‘갑’기관의 면접 문항별 점수 및 반영률

구분 차수	평가 항목	문항 번호	문항 점수	기본 점수	명목 반영률	실질 반영률
1차	교양	1	20	10	( )	0.17
		2	30	10	0.25	( )
	전문성	3	30	20	( )	( )
		4	40	20	( )	( )
	합계		120	60	1.00	1.00
2차	창의성	1	20	10	0.22	( )
	도전성	2	20	10	0.22	( )
	인성	3	50	20	0.56	0.60
	합계		90	40	1.00	1.00

※ 1) 문항의 명목 반영률 =  $\frac{\text{문항점수}}{\text{해당차수 문항점수의 합계}}$

2) 문항의 실질 반영률 =

$$\frac{\text{문항점수} - \text{기본점수}}{\text{해당차수 문항별 (문항점수} - \text{기본점수)의 합계}}$$

<표 2> 지원자 A ~ F의 면접 점수 및 결과

<div><div>차수</div><div>평가항목</div></div>	1차					2차				종합 점수	결과
	교양		전문성		합계	창의성	도전성	인성	합계		
	1	2	3	4		1	2	3			
지원자	문항번호										
A		18	26	30	38	112	20	18	46	84	( ) ( )
B		20	28	28	38	114	18	20	46	84	93.0 합격
C		18	28	26	38	110	20	20	46	86	( ) ( )
D		20	28	30	40	118	20	18	44	82	( ) 불합격
E		18	30	30	40	118	18	18	50	86	95.6 ( )
F		18	28	28	40	114	20	20	48	88	( ) ( )

※ 1) 종합점수 = 1차 합계 점수 × 0.3 + 2차 합계 점수 × 0.7

2) 합격정원까지 종합점수가 높은 지원자부터 순서대로 합격시킴.

3) 지원자는 A ~ F 뿐임.

문 18. 위 <표>에 근거하여 결과가 합격인 지원자를 종합점수가 높은 지원자부터 순서대로 모두 나열하면?

- ① E, F, B
- ② E, F, B, C
- ③ F, E, C, B
- ④ E, F, C, B, A
- ⑤ F, E, B, C, A

문 19. 위 <표>에 근거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각 문항에서 명목 반영률이 높을수록 실질 반영률도 높다.
- ㄴ. 1차 면접에서 문항별 실질 반영률의 합은 ‘교양’이 ‘전문성’보다 크다.
- ㄷ. D가 1차 면접 2번 문항에서 1점을 더 받았다면, D의 결과는 합격이다.
- ㄹ. 명목 반영률보다 실질 반영률이 더 높은 2차 면접 문항에서 지원자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는 2차 합계 점수도 가장 낮다.

- ① ㄱ
- ② ㄹ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문 20. 다음 <표>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갑’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응급실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유형	응급의료기관 수	내원 환자 수	응급실 병상 수	응급실 전담 전문의 수	응급실 전담 간호사 수
전체	399	7,664,679	7,087	1,417	7,240
권역응급 의료센터	35	1,540,393	1,268	318	1,695
지역응급 의료센터	125	3,455,117	3,279	720	3,233
기초응급 의료센터	239	2,669,169	2,540	379	2,312

※ 내원 환자 수는 2021년에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임.

- ① 응급실 전담 전문의 1인당 응급실 전담 간호사 수가 가장 많은 응급의료기관 유형은 기초응급의료센터이다.
- ② 전체 응급의료기관당 응급실 전담 전문의 수는 4명 이상이다.
- ③ 내원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응급의료기관 유형과 응급의료기관당 응급실 전담 간호사 수가 가장 많은 유형은 동일하다.
- ④ 응급실 전담 전문의 1인당 내원 환자 수가 가장 적은 응급의료기관 유형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이다.
- ⑤ 응급실 병상당 내원 환자 수는 모든 응급의료기관 유형에서 각각 1,200명 이하이다.

문 21. 다음 <표>는 2016 ~ 2020년 ‘갑’국의 장기 기증 및 이식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연도별 장기 기증 및 이식 현황  
(단위: 명, 건)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기증 희망자	926,009	1,036,916	1,140,808	1,315,132	1,438,665
뇌사 기증자	268	368	409	416	446
이식 대기자	18,189	21,861	22,695	26,036	24,607
이식 건수	3,133	3,797	3,990	3,814	3,901
뇌사자장기이식	1,108	1,548	1,751	1,741	1,818
생체이식	1,780	1,997	2,045	1,921	1,952
사후각막이식	245	252	194	152	131

—<보 기>—

- ㄱ. 2017년 이후 뇌사 기증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기증 희망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보다 매년 높다.  
 ㄴ. 뇌사 기증자 1인당 뇌사자장기이식 건수는 매년 4건 이상이다.  
 ㄷ. 이식 대기자 수와 이식 건수는 연도별 증감 방향이 같다.  
 ㄹ. 이식 건수 중 생체이식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한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ㄴ, ㄷ, ㄹ

문 22. 다음 <표>는 ‘갑’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관광객 국적에 따라 대륙별, 국가별로 정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갑’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대륙별 현황  
(단위: 명)

대륙 \ 연도	2010	2015	2020
아시아	6,749,222	10,799,355	1,918,037
북미	813,860	974,153	271,487
유럽	645,753	806,438	214,911
대양주	146,089	168,064	30,454
아프리카	33,756	46,525	14,374
기타	408,978	439,116	69,855
전체	8,797,658	13,233,651	2,519,118

<표 2> ‘갑’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국가별 현황  
(단위: 명)

국가 \ 연도	2010	2015	2020
일본	3,023,009	1,837,782	430,742
중국	1,875,157	5,984,170	686,430
미국	652,889	767,613	220,417

—<보 기>—

- ㄱ. 2010년 대비 2015년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아프리카’가 ‘대양주’의 2배 이상이다.  
 ㄴ. 2015년 ‘일본’과 ‘중국’ 관광객의 합은 같은 해 ‘아시아’ 관광객의 75% 이상이다.  
 ㄷ. 2015년 대비 2020년 외국인 관광객 감소폭은 ‘북미’가 ‘유럽’보다 크다.  
 ㄹ. 2020년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미국’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8% 미만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문 23. 다음 <표>는 5개 구간(A ~ E)의 교통수단별 소요시간 및 비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교통수단별 소요시간 및 비용  
(단위: 분, 원)

구간	구분	교통수단	고속열차	일반열차	고속버스	일반버스
A	소요시간		160	290	270	316
	비용		53,300	40,700	32,800	27,300
B	소요시간		181	302	245	329
	비용		48,600	39,300	29,300	26,500
C	소요시간		179	247	210	264
	비용		36,900	32,800	25,000	22,000
D	소요시간		199	287	240	300
	비용		41,600	37,800	29,200	25,400
E	소요시간		213	283	250	301
	비용		42,800	39,300	29,500	26,400

- ① C 구간에서 비용이 35,000원 이하인 교통수단 중 소요시간당 비용이 가장 큰 교통수단은 고속버스이다.
- ② 고속열차와 일반버스 간 소요시간 차이가 가장 작은 구간과 고속열차와 일반버스 간 비용 차이가 가장 작은 구간은 동일하다.
- ③ 고속열차 이용 시 소요시간당 비용은 D 구간이 E 구간보다 작다.
- ④ 고속버스가 일반열차보다 소요시간과 비용이 모두 작은 구간은 4개이다.
- ⑤ A 구간에서 교통수단 간 소요시간 차이가 클수록 비용 차이도 크다.

문 24. 다음 <표>는 A ~ D 지역의 면적, 동 수 및 인구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을 근거로 A ~ D에 해당하는 지역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A ~ D 지역의 면적, 동 수 및 인구 현황  
(단위: km<sup>2</sup>, %, 개, 명)

구분 지역	면적	구성비				동 수		행정동 평균 인구
		주거	상업	공업	녹지	행정동	법정동	
A	24.5	35.0	20.0	10.0	35.0	16	30	9,175
B	15.0	65.0	35.0	0.0	0.0	19	19	7,550
C	27.0	40.0	2.0	3.0	55.0	14	13	16,302
D	21.5	30.0	3.0	45.0	22.0	11	12	14,230

- ※ 1) 각 지역은 용도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만 구성됨.  
2) 지역을 동으로 구분하는 방법에는 행정동 기준과 법정동 기준이 있음. 예를 들어, A 지역의 동 수는 행정동 기준으로 16개이지만 법정동 기준으로 30개임.

<조 건>

- 인구가 15만 명 미만인 지역은 '행복'과 '건강'이다.
- 주거 면적당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사랑'이다.
- 행정동 평균 인구보다 법정동 평균 인구가 많은 지역은 '우정'이다.
- 법정동 평균 인구는 '우정' 지역이 '행복' 지역의 3배 이상이다.

- |      |          |          |          |          |
|------|----------|----------|----------|----------|
|      | <u>A</u> | <u>B</u> | <u>C</u> | <u>D</u> |
| ① 건강 |          | 행복       | 사랑       | 우정       |
| ② 건강 |          | 행복       | 우정       | 사랑       |
| ③ 사랑 |          | 행복       | 건강       | 우정       |
| ④ 행복 |          | 건강       | 사랑       | 우정       |
| ⑤ 행복 |          | 건강       | 우정       | 사랑       |

문 25. 다음 <표>는 ‘갑’국의 재난사고 발생 및 피해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재난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유형	구분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발생건수	14,879	24,454	17,662	15,313	12,413
	피해인원	9,819	13,189	14,959	16,109	16,637
화재	발생건수	1,527	1,296	1,552	1,408	1,594
	피해인원	138	46	148	111	178
붕괴	발생건수	2	8	2	6	14
	피해인원	4	6	2	4	14
폭발	발생건수	6	2	2	5	3
	피해인원	3	1	3	1	6
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	12,805	23,115	13,960	12,098	9,581
	피해인원	9,536	13,097	14,394	14,560	15,419
기타	발생건수	539	33	2,146	1,796	1,221
	피해인원	138	39	412	1,433	1,020

※ ‘피해인원’은 재난사고로 인해 인적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본 인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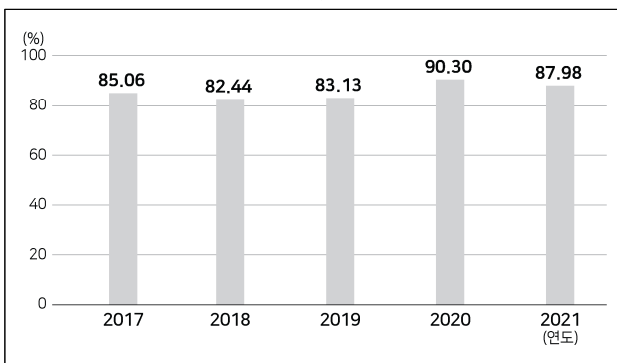
<표 2> 재난사고 피해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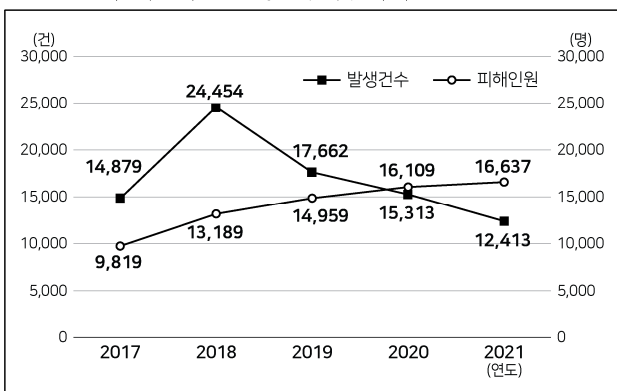
연도	구분	인적피해		재산피해액
		사망	부상	
2017		234	8,352	14,629
2018		224	10,873	20,165
2019		222	12,435	52,654
2020		215	14,547	20,012
2021		292	14,637	40,981

※ 인적피해는 사망과 부상으로만 구분됨.

① 연도별 전체 재난사고 인적피해 중 부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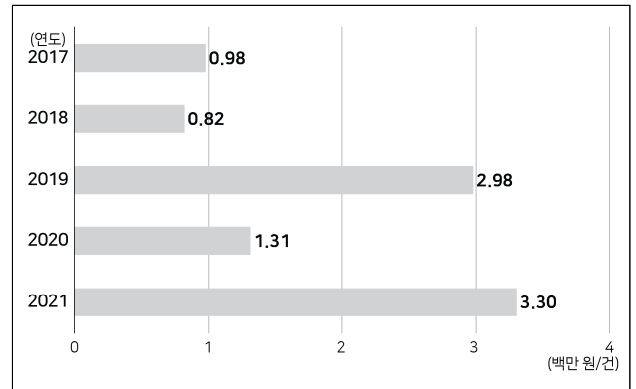
② 연도별 전체 재난사고 발생건수 및 피해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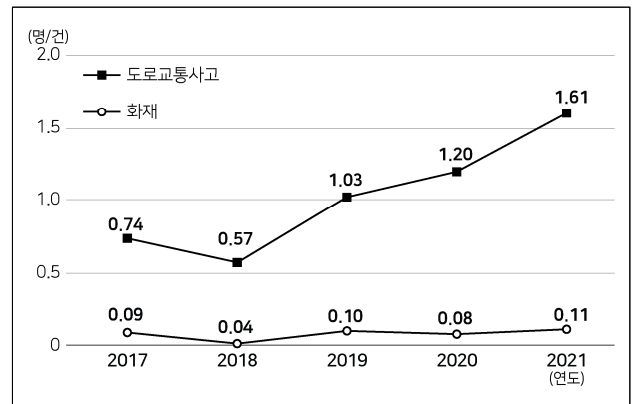
③ 연도별 전체 재난사고 발생건수 중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 비중  
(단위: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86.06	94.52	79.04	79.00	77.19

④ 연도별 전체 재난사고 발생건수당 재산피해액



⑤ 연도별 화재 및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당 피해인원



문 26. 다음 <표>는 2021년 A 시 자녀장려금 수급자의 특성별 수급횟수를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자녀장려금 수급자 특성별 수급횟수 비중  
(단위: 명, %)

수급자 특성		수급자 수	수급횟수			
대분류	소분류		1회	2회	3회	4회 이상
연령대	20대 이하	8	37.5	25.0	0.0	37.5
	30대	583	37.2	30.2	19.0	13.6
	40대	347	34.9	27.7	23.9	13.5
	50대 이상	62	29.0	30.6	35.5	4.8
자녀수	1명	466	42.3	28.1	19.7	9.9
	2명	459	31.2	31.8	22.2	14.8
	3명	66	27.3	22.7	27.3	22.7
	4명 이상	9	11.1	11.1	44.4	33.3
주택보유 여부	무주택	732	35.0	29.5	22.0	13.5
	유주택	268	38.4	28.7	20.5	12.3
전체		1,000	35.9	29.3	21.6	13.2

— <보 기> —

- ㄱ. 자녀장려금 수급자의 전체 수급횟수는 2,000회 이상이다.  
 ㄴ. 자녀장려금을 1회 수령한 수급자 수는 30대가 40대의 1.5배 이상이다.  
 ㄷ. 자녀수가 2명인 수급자의 자녀장려금 전체 수급횟수는 자녀수가 1명인 수급자의 자녀장려금 전체 수급횟수보다 많다.  
 ㄹ. 자녀장려금을 2회 이상 수령한 수급자 수는 무주택 수급자가 유주택 수급자의 2.5배 이상이다.

- ① ㄱ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27. 다음 <표>는 2020년 11월 ‘갑’국의 도로종류 및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2020년 11월 도로종류 및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현황  
(단위: 건, 명)

도로종류	기상상태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일반국도	맑음	1,442	32	2,297
	흐림	55	3	115
	비	83	6	134
	안개	24	3	38
	눈	29	0	51
지방도	맑음	1,257	26	1,919
	흐림	56	5	110
	비	73	2	104
	안개	14	1	18
	눈	10	0	20
고속국도	맑음	320	10	792
	흐림	14	1	23
	비	15	1	29
	안개	4	2	12
	눈	4	0	8

※ 1) 기상상태는 교통사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맑음, 흐림, 비, 안개, 눈 중 1가지로만 분류함.

2) 사상자수 = 사망자수 + 부상자수

- ① 각 도로종류에서 교통사고 발생건수 대비 사망자수 비율은 기상상태가 ‘안개’일 때 가장 높다.  
 ② 각 도로종류에서 부상자수 대비 사망자수 비율은 기상상태가 ‘안개’일 때가 ‘맑음’일 때의 3배 이상이다.  
 ③ 각 도로종류에서 기상상태가 ‘비’일 때와 ‘눈’일 때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합은 해당 도로종류의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10% 이상이다.  
 ④ 교통사고 발생건수당 사상자수가 2명을 초과하는 기상상태는 일반국도 1가지, 지방도 1가지, 고속국도 3가지이다.  
 ⑤ 기상상태가 ‘흐림’일 때 교통사고 발생건수 대비 부상자수 비율은 일반국도가 지방도보다 낮다.

문 28. 다음 <표>는 ‘갑’국의 6 ~ 9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지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무역지수

구분 월	수출		수입	
	수출금액지수	수출물량지수	수입금액지수	수입물량지수
6	110.06	113.73	120.56	114.54
7	103.54	106.28	111.33	102.78
8	104.32	108.95	116.99	110.74
9	105.82	110.60	107.56	103.19

※ 수출(입)물가지수 =  $\frac{\text{수출(입)금액지수}}{\text{수출(입)물량지수}} \times 100$

<표 2> 교역조건지수

구분 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	소득교역조건지수
6	91.94	(    )
7	(    )	95.59
8	(    )	98.75
9	91.79	(    )

※ 1) 순상품교역조건지수 =  $\frac{\text{수출물가지수}}{\text{수입물가지수}} \times 100$

2) 소득교역조건지수 =  $\frac{\text{수출물가지수} \times \text{수출물량지수}}{\text{수입물가지수}}$

<보 기>

- ㄱ. 수출금액지수와 수출물량지수는 매월 상승한다.  
ㄴ. 수출물가지수는 매월 90 이상이다.  
ㄷ.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매월 100 이하이다.  
ㄹ. 소득교역조건지수는 9월이 6월보다 낮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29. 다음 <방법>은 2021년 ‘갑’국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이고, <표>는 건물 A ~ E의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이다. 이에 근거하여 A ~ E 중 2021년 기준시가가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을 고르면?

<방 법>

○ 기준시가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건물면적(m<sup>2</sup>) × 100,000(원/m<sup>2</sup>)

○ 구조지수

구조	지수
경량철골조	0.67
철골콘크리트조	1.00
통나무조	1.30

○ 용도지수

용도	대상건물	지수
주거용	단독주택	1.00
	아파트	1.10
상업용 및 업무용	여객자동차터미널	1.20
	청소년수련관	1.25
	관광호텔	1.50
	무도장	1.50

○ 경과연수별잔가율 = 1 - 연상각률 × (2021 - 신축연도)

용도	주거용	상업용 및 업무용
연상각률	0.04	0.05

※ 경과연수별잔가율 계산 결과가 0.1 미만일 경우에는 경과연수별잔가율을 0.1로 정함.

<표> 건물 A ~ E의 구조, 대상건물, 신축연도 및 건물면적

구분 건물	구조	대상건물	신축연도	건물면적 (m <sup>2</sup> )
A	철골콘크리트조	아파트	2016	125
B	경량철골조	여객자동차터미널	1991	500
C	철골콘크리트조	청소년수련관	2017	375
D	통나무조	관광호텔	2001	250
E	통나무조	무도장	2002	200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 문 30. 다음 <표>는 2017년 기준 농림어업 생산액 상위 20개국의 GDP 및 농림어업 생산액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2017년 기준 농림어업 생산액 상위 20개국의 GDP 및 농림어업 생산액 현황

(단위: 십억 달러, %)

연도 구분 국가	2017			2012		
	GDP	농림어업 생산액	GDP 대비 비율	GDP	농림어업 생산액	GDP 대비 비율
중국	12,237	( )	7.9	8,560	806	9.4
인도	2,600	( )	15.5	1,827	307	16.8
미국	( )	198	1.0	16,155	194	1.2
인도네시아	1,015	133	13.1	917	122	13.3
브라질	2,055	93	( )	2,465	102	( )
나이지리아	375	78	20.8	459	100	21.8
파키스탄	304	69	( )	224	53	( )
러시아	1,577	63	4.0	2,210	70	3.2
일본	4,872	52	1.1	6,230	70	1.1
터키	851	51	6.0	873	67	7.7
이란	454	43	9.5	598	45	7.5
태국	455	39	8.6	397	45	11.3
멕시코	1,150	39	3.4	1,201	38	3.2
프랑스	2,582	38	1.5	2,683	43	1.6
이탈리아	1,984	37	1.9	2,072	40	1.9
호주	1,323	36	2.7	1,543	34	2.2
수단	117	35	29.9	68	22	32.4
아르헨티나	637	35	5.5	545	31	5.7
베트남	223	34	15.2	155	29	18.7
스페인	1,311	33	2.5	1,336	30	2.2
전세계	80,737	3,351	4.2	74,993	3,061	4.1

- 2017년 농림어업 생산액 상위 5개국 중, 농림어업 생산액의 GDP 대비 비율이 전세계보다 낮은 국가는 미국뿐이다.
- 2017년 농림어업 생산액 상위 3개국의 GDP 합은 전세계 GDP의 50% 이상이다.
- 2017년 농림어업 생산액 상위 20개국 중, 2012년 대비 2017년 농림어업 생산액의 GDP 대비 비율이 증가한 국가는 모두 2012년 대비 2017년 GDP가 감소하였다.
- 2017년 농림어업 생산액은 중국이 인도의 2배 이상이다.
- 파키스탄은 농림어업 생산액의 GDP 대비 비율이 2012년 대비 2017년에 감소하였다.

- 문 31. 다음 <보고서>는 ‘갑’국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관한 자료이고, <표>는 A ~ E 국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에 관한 자료이다.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 ~ E 중 ‘갑’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보고서>

‘갑’국은 전체 아동과 청소년 중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을 조사하여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을 위험의 정도에 따라 고위험군과 잠재위험군으로 구분했다. ‘갑’국의 아동은 남자가 여자보다 고위험군과 잠재위험군 비율이 모두 높았으나, 청소년은 반대로 여자가 남자보다 모든 위험군에서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 아동에 비해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높았다. 아동의 경우 남자와 여자 각각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20%에서 25% 사이이지만, 청소년의 경우 남자와 여자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각각 25%를 초과했다.

아동과 청소년 간 과의존위험군 비율 차이는 남자보다 여자가 컸지만, 여자의 해당 비율 차이는 10%p 이하였다. 잠재위험군 비율에서 아동과 청소년 간 차이는 남자가 5%p 이하였으나, 여자는 7%p 이상이였다.

<표> A ~ E 국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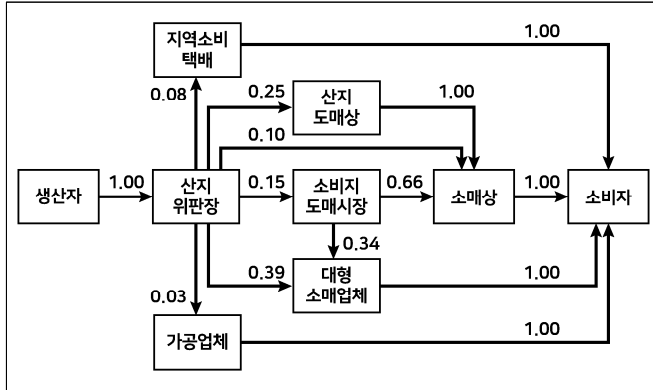
(단위: %)

국가			A	B	C	D	E
구분	성별	위험군					
아동	남자	고위험	2.1	2.3	2.2	2.6	2.2
		잠재위험	20.1	20.0	20.2	21.3	21.2
	여자	고위험	2.0	2.2	1.8	2.0	2.4
		잠재위험	18.1	19.8	17.5	19.9	18.8
청소년	남자	고위험	3.1	3.3	3.2	3.6	3.2
		잠재위험	24.7	25.3	24.8	25.5	25.1
	여자	고위험	4.1	3.9	3.8	4.0	3.5
		잠재위험	28.2	28.1	25.2	27.4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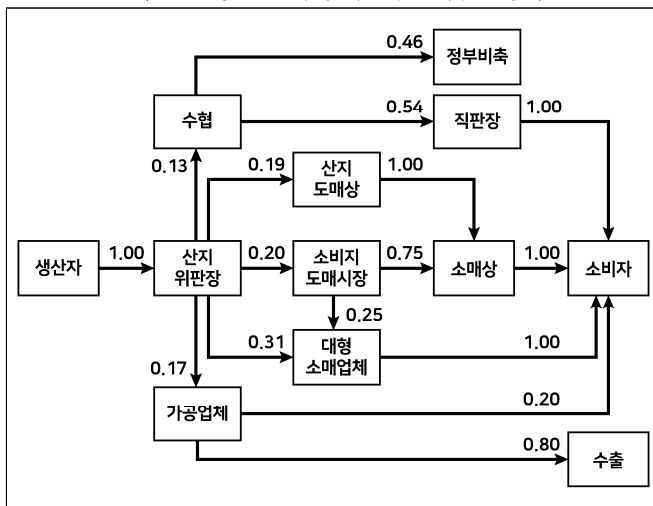
- A
- B
- C
- D
- E

- 문 32. 다음 <그림>과 <표>는 2021년 ‘갑’국 생물 갈치와 냉동 갈치의 유통구조 및 물량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1> 생물 갈치의 유통구조 및 물량비율



<그림 2> 냉동 갈치의 유통구조 및 물량비율



※ 유통구조 내 수치는 물량비율 (= 다음 유통경로에 전달되는 유통물량 / 해당 유통경로에 투입되는 유통물량)을

의미함. 예를 들어,  $\boxed{\text{가}} \xrightarrow{0.20} \boxed{\text{나}}$  는 해당 유통경로 ‘가’에 100톤의 유통물량이 투입되면 이 중 20톤 (= 100톤 × 0.20)의 유통물량이 다음 유통경로 ‘나’에 전달되어 투입됨을 의미함.

<표> 생산자가 공급한 생물 갈치와 냉동 갈치의 물량  
(단위: 톤)

구분	생물 갈치	냉동 갈치
물량	42,100	7,843

<보 기>

- ㄱ. ‘생산자’가 공급한 냉동 갈치 물량의 85% 이상이 유통구조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었다.  
 ㄴ. ‘소매상’을 통해 유통된 물량은 생물 갈치가 냉동 갈치의 6배 이상이다.  
 ㄷ. ‘대형소매업체’를 통해 유통된 생물 갈치와 냉동 갈치 물량의 합은 20,000톤 미만이다.  
 ㄹ. 2022년 냉동 갈치 ‘수출’ 물량이 2021년보다 60% 증가한다면, 2022년 냉동 갈치 ‘수출’ 물량은 2021년 ‘소비지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된 냉동 갈치 물량보다 많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ㄴ, ㄷ, ㄹ

- 문 33. 다음 <표>는 총 100회 개최된 사내 탁구대회에 매회 모두 참가한 사원 A, B, C의 라운드별 승률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탁구 대회 운영방식>에 근거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사원 A, B, C의 사내 탁구대회 라운드별 승률  
(단위: %)

사원 \ 라운드	16강	8강	4강	결승
A	80.0	100.0	( )	( )
B	100.0	90.0	( )	( )
C	96.0	87.5	( )	( )

<탁구대회 운영방식>

- 매회 사내 탁구대회는 16강, 8강, 4강, 결승 순으로 라운드가 치러지고, 라운드별 경기 승자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며, 결승 라운드 승자가 우승한다.  
 ○ 매회 16명이 대회에 참가하고, 각 라운드에서 참가자는 한 경기만 치른다.  
 ○ 모든 경기는 참가자 1:1 방식으로 진행되며 무승부는 없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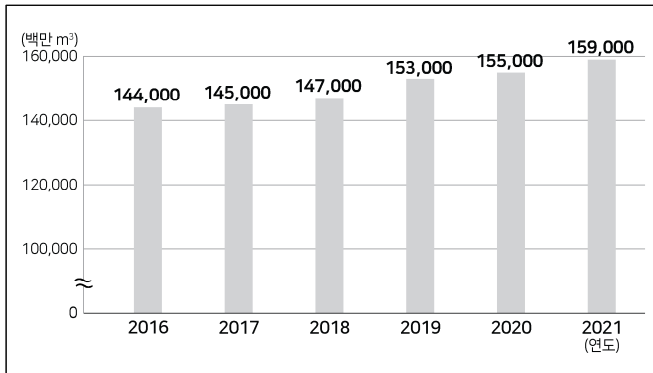
- ㄱ. 사원 A, B, C 중 4강에 많이 진출한 사원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B, A, C 순이다.  
 ㄴ. A가 8번 우승했다면, A의 결승 라운드 승률 최솟값은 10%이다.  
 ㄷ. 16강에서 A와 B 간 또는 B와 C 간 경기가 있었던 대회 수는 24회 이하이다.  
 ㄹ. 사원 A, B, C가 모두 4강에 진출한 대회 수는 50회 이상이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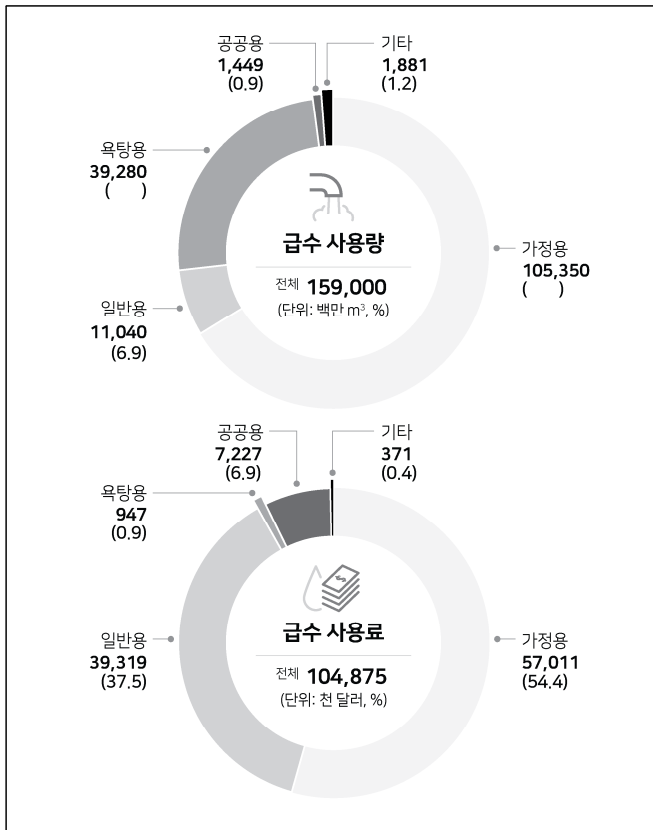


문 34. 다음 <그림>은 ‘갑’국의 급수 사용량과 사용료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1> 2016 ~ 2021년 연간 급수 사용량



<그림 2> 2021년 용도별 급수 사용량과 사용료



※ 1)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에서 해당 용도가 차지하는 비중임.

$$2) \text{용도별 급수단가(달러/m}^3\text{)} = \frac{\text{용도별 급수 사용료}}{\text{용도별 급수 사용량}}$$

<보 기>

- ㄱ. 2018년 이후 급수 사용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매년 감소한다.  
 ㄴ. 2021년 급수 사용량의 60% 이상이 가정용이다.  
 ㄷ. 2016년 용도별 급수 사용량의 구성비와 용도별 급수단가가 2021년과 동일하다면, 2016년 전체 급수 사용료는 1억 달러 이상이다.  
 ㄹ. 2021년 공공용 급수단가는 가정용 급수단가의 9배 이상이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35. 다음 <표>는 A 지역 아파트 분양 청약 및 경쟁률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청약 및 추첨 방식>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가)에 해당하는 값은?

<표 1> A 지역 아파트 분양 청약 결과

(단위: 세대, 명)

택형	공급세대수	청약자 주소지	청약자수
84	100	A 지역	600
		인근지역	420
		기타지역	5,020
99	200	A 지역	800
		인근지역	440
		기타지역	4,840

<표 2> A 지역 아파트 추첨 단계별 경쟁률

(단위: 세대)

택형	공급세대수	단계	경쟁률
84	100	1단계	30
		2단계	(가)
		3단계	100
99	200	1단계	(나)
		2단계	30
		3단계	50

$$\text{※ (해당 단계) 경쟁률} = \frac{\text{(해당 단계) 추첨 대상 청약자수}}{\text{(해당 단계) 당첨자수}}$$

<청약 및 추첨 방식>

- 청약자는 한 개의 택형에만 청약이 가능함.
- 청약자 주소지에 의해 ‘A 지역’, ‘인근지역’, ‘기타지역’으로 접수됨.
- 84택형과 99택형의 추첨 방식은 동일함.
- 다음 단계에 따라 택형별 당첨자를 뽑음.
  - － (1단계) ‘A 지역’ 청약자 중 해당 택형 공급세대수의 (다) %를 뽑은 후,
  - － (2단계) 1단계에서 당첨되지 않은 ‘A 지역’ 청약자와 ‘인근지역’ 청약자 중 해당 택형 공급세대수의 (라) %를 뽑고,
  - － (3단계) 마지막으로 1 ~ 2단계에서 당첨되지 않은 청약자와 ‘기타지역’ 청약자 중 해당 택형의 남은 공급세대수만큼 당첨자를 뽑음.

- ① 20  
 ② 50  
 ③ 60  
 ④ 75  
 ⑤ 80

문 36. 다음 <표>는 ‘갑’국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변경주기를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변경주기 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대상자 수	변경하였음					변경하지 않았음
			1년 초과	6개월 초과 1년 이하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3개월 이하		
전체		4000	70.0	30.9	21.7	10.5	6.9	29.7
성 별	남성	2059	70.5	28.0	23.2	11.7	7.6	29.1
	여성	1941	69.5	34.0	20.1	9.2	6.2	30.3
연 령 대	15 ~ 19세	367	55.0	22.9	12.5	12.0	7.6	45.0
	20대	702	67.7	32.5	17.0	9.5	8.7	32.3
	30대	788	74.7	33.8	20.4	11.9	8.6	24.5
	40대	922	71.0	29.5	25.1	10.1	6.4	28.5
	50대 이상	1,221	72.0	31.6	25.5	10.0	4.9	27.8
직 업	전문직	691	70.3	28.7	23.7	11.4	6.5	29.2
	사무직	1,321	72.7	30.8	23.1	11.6	7.3	26.7
	판매직	374	74.3	32.4	22.2	11.5	8.3	25.4
	기능직	242	73.1	29.8	25.6	9.1	8.7	26.9
	농림어업직	22	81.8	13.6	31.8	18.2	18.2	18.2
	학생	611	58.9	27.5	12.8	11.0	7.7	41.1
	전업주부	506	73.5	36.4	24.5	7.5	5.1	26.5
	기타	233	63.5	35.6	19.3	6.0	2.6	36.1

※ 항목별로 중복응답은 없으며, 전체 대상자 중 무응답자는 12명임.

—<보 기>—

- ㄱ. 변경주기가 1년 이하인 응답자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ㄴ. 전체 무응답자 중 ‘사무직’ 남성은 2명 이상이다.  
 ㄷ. 20대 응답자 중 변경주기가 6개월 이하인 비율은 40대 응답자 중 변경주기가 6개월 이하인 비율보다 높다.  
 ㄹ. 비밀번호를 변경한 응답자 중 변경주기가 1년 초과인 응답자수는 ‘학생’이 ‘전업주부’보다 많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문 37. 다음 <표>는 ‘갑’국 소프트웨어 A ~ C의 개발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개발비 및 생산성지수 산정 방식>에 근거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소프트웨어 A ~ C의 기능유형별 기능 개수  
(단위: 개)

소프트웨어	기능유형	내부논리 파일	외부연계 파일	외부입력	외부출력	외부조회
A		10	5	5	10	4
B		15	4	6	7	3
C		3	2	4	6	5

<표 2> 기능유형별 가중치

기능유형	내부논리 파일	외부연계 파일	외부입력	외부출력	외부조회
가중치	7	5	4	5	3

<표 3> 소프트웨어 A ~ C의 보정계수, 이윤 및 공수

소프트웨어	구분	보정계수				이윤 (%)	공수
		규모계수	언어계수	품질 및 특성계수	애플리케이션 유형계수		
A		0.8	2.0	0.2	2.0	20	20
B		1.0	1.0	1.2	3.0	10	30
C		0.8	2.0	1.2	1.0	20	10

※ 공수는 1인의 개발자가 1개월 동안 일하는 노력의 양(man-month)을 의미함.

—<개발비 및 생산성지수 산정 방식>—

- 개발비 = 개발원가 + 개발원가 × 이윤  
 ○ 개발원가 = 기준원가 × 보정계수  
 ○ 기준원가 = 기능점수 × 50만 원  
 ○ 보정계수 = 규모계수 × 언어계수 × 품질 및 특성계수 × 애플리케이션유형계수  
 ○ 기능점수는 각 기능유형별 기능 개수에 해당 기능유형별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으로 계산됨.  
 ○ 생산성지수 =  $\frac{\text{기능점수}}{\text{공수}}$

—<보 기>—

- ㄱ. 기능점수는 B가 가장 높고 C가 가장 낮다.  
 ㄴ. 기준원가가 가장 낮은 소프트웨어와 개발비가 가장 적은 소프트웨어는 동일하다.  
 ㄷ. 개발원가와 기준원가의 차이는 B가 C의 5배 이상이다.  
 ㄹ. 기능점수가 가장 높은 소프트웨어가 생산성지수도 가장 크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보기〉-